



■ 원로와의 대담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鄭 樂 殷** 선생

대담 / 朴 澤 奎 (건국대 이과대 교수/본지 편집위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본 유학시절, 국방과학연구소장 시절 이야기, 그리고 특히 최초의 국산 로켓 발사에 얽힌 비화 등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선 어릴적 이야기부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설득, 일에 유학

1918년 11월9일에 충남 논산군 광석면에서 태어났지요. 엄친께서 이조 말엽에 충청도로 낙향하셨는데 내 원적지는 부여군 초촌면입니다. 논산에서 공주보통학교에 다니다 3학년2학기 때 부여보통학교에 편입해서 졸업했고 그 후 5년제 공주고보를 졸업하고 내 공부때문에 부모님께서 공주로 이사오셨

어요. 부모님은 의학공부하기를 원하셨고 그게 싫으면 경성고공에 진학하라고 설득하셨지요. 그런데 당시 일본의 식민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고공에는 기계, 전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었지요.

선생님께서서는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서 일본 구마모토대학 기계과에 진학, 1939년에 졸업하셨는데 그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해방후 공업연구소로

졸업 후 4년간 철도국에 근무하다가 동경공업대학 전기과에 입학하여 42년 9월에 졸업했는데 그해 전기과 졸업생 중 한국인은 나 혼자였어요. 고공때부터 충남에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장학금

“ 재래기술 바로 익혀야
첨단기술 가능하지요 ”

을 받았고 또한 노구찌씨의 흥남질소에서 운영하는 조선장학회의 장학금도 받았어요. 등록금은 집에서 보내주었고 생활비는 장학금으로 거의 충당했지요. 동경공대에 진학할 때는 부모님이 결사 반대하시면서 학비를 안준다고 하시다가 결국은 등록금을 보내주시더군요.

고공을 졸업하니 보일러 취급 2종면허를 받았고 대학졸업후에는 전기주임 기술자(1종) 자격증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 자격증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공 졸업후에는 수학교원자격증도 획득해서 동경에서 가끔 수험생 수학지도를 해서 1개월에 20~30원 정도

의 부수입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졸업한 뒤 일본육군 연료창 공작과장으로 근무했는데 육군 기술대위로서 전공인 기계로 돌아선 셈이지요.

일본군 기술계통 장교로 복무한 인연으로 정부수립후 국방부 조병창 등에 관계하게 됐어요. 45년 11월에 서울로 돌아왔고 그 다음해 3월경에 국립중앙공업연구소로 생면부지의 안동혁 선생님을 찾아 갔더니 내일부터 당장 근무하라는 분부였어요. 당시 공에 부장이던 전풍진박사 밑에서 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공업연구소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안동혁소장이 기계공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기계공학과를 신설, 내가 초대과장이 되었고 그후 황의준선생으로 과장이 이어졌지요.

선생님께서서는 언제 육군에 입대하셨습니까? 국방부 병기창에 근무하시면서 무기제조에도 직접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10년

48년 12월에 중위로 입대해서 60년 8월말까지 병기창에 근무했어요. 당시 우리의 무기제조 수준은 초보단계로써 소총, 권총의 시제품 제조 정도이고 소총탄환은 많이 생산했어요. 당시 경찰에는 일본제 구구식소총이 지급되어서 경찰용 소총탄환을 제조공급했는데 수류탄도 많이 만들었어요. 미군들의 연습용 수류탄(폭약이 들어있지 않음)을 보내오면 폭약을 넣고 개조해서 사용했는데 미군도 이것으로 부족한 것을 충당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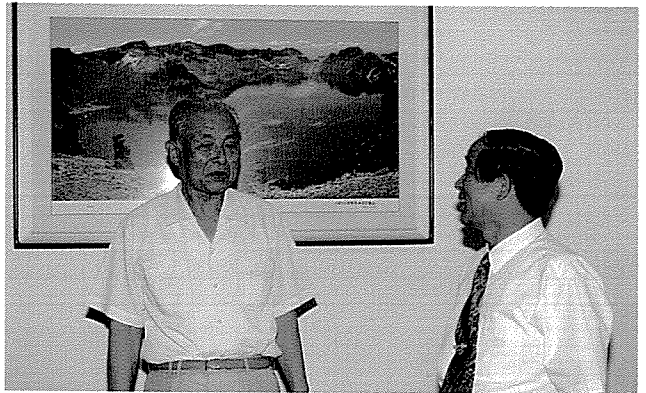
6.25때 부산에 가서 병기행정본부

차장겸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장이 되면서 그후 10년간 대령을 지냈어요. 미군 수류탄은 터뜨리면 유리처럼 깨져서 예리한 파편이 되는데 우리가 만든 수류탄은 솜옷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였고 파편도 별로 없어서 초코렛수류탄이라고 불렸어요.

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던 진지한 모습이 가끔 회상되곤 하는군요.

선생님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까만 1959년 당시 이승만대통령 임석하에 인천해변에서 한국 최초의 로켓발사 성공이라 해서 국민들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때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첨단과학기술도 재대식기술의 비동위에서 발전한다는 정낙은선생(좌)이 박택규 본지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당시 최상업(전 서강대 부총장)박사가 순수 화학자이면서도 화학과장으로 수류탄 연구책임자였고 박태원박사(인하대 명예총장)가 함께 연구했어요. 수류탄 폭발실험을 하는데 드럼통에 넣어서 폭발끈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하는 거였어요. 이런 방법으로 수류탄의 성능을 개선하였고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어요. 그후 미국 조병창에 가서 수류탄폭발 및 파편생성실험을 해보았더니 역시 드럼통에 넣어서 하더군요. 최박사팀이 개발한 그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게 있어요. 최상업박사가 하루는 “소장님 과학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연구를 하는 것이 사명인데 사람을 죽이는 폭탄연구를 하게 되니 비통한 생각마저 듭니다.” 전쟁중 살상용 수류탄제조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로켓연구 중단 아쉬워

당시 육군준장으로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특수병기과를 만들어서 로켓연구를 시작했어요. 이 로켓은 기초실험용이었고 로켓발사약도 미군용이었어요. 큰 효과를 거두려는 의미보다도 로켓개발의 필요성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절실함을 일깨워 이 부분의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도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발간되는 권위있는 잡지에 한국의 인천시 고잔동에서 로켓이 발사되었다고 공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MIT총장을 책임하고 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발사 후 대통령 과학담당보좌관이었던 분이 로켓발사에 대해서 축하하는 서신을 보내온 일도 있어요. 로켓연구가 그대로 계속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대통령 하야 후 이 과도 없어지고 연구도 중단되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종찬장관에게 내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함께 일하고 함께 그만두자고 설득해서 결국 60년에 이장관이 그만둘 때 나도 그만두었지요.

선생님께서서는 퇴역 후 사장, 장관, 교수 그리고 연구소 소장 등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리 안맞는 장관 맡아

60년 11월에 경성전기주식회사 기술 상무로 부임하면서 비로소 전기기술자 노릇을 제대로 해보았지요. 나는 전기 기술 1종면허증이 있지만 한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지요. 5.16후 61년 7월에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가 한국전력으로 통합되면서 부사장으로 취임해서 63년 12월까지 근무했고 12월부터 건설부장관을 6개월간 했어요. 나와 같은 자연과학도에게는 장관이 생리에 안맞더군요. 경제장관회의라 하면 경제기획원, 상공, 재무, 농림에 건설부장관이 끼는데 할일이 없는거예요. 국회의원도 찾아와서 다리는 이곳에 가설해야 된다고 역설하는데 경제성, 타당성을 조사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거절하면 장관이 정치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밀어부쳤지만 끝까지 거절했지요. 당시에는 정말 장관 1년 하면 사람버리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64년 11월부터 68년 12월까지 대우중공업전신인 한국기계사장, 69년 2월부터 77년 2월까지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이해 3월부터 80년 3월까지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기계금속시

험연구소(현 기계연구원)소장을 지냈고 80년 4월부터 92년 12월까지 신화건설주식회사 고문을 지내다 작년 1월부터 완전히 은퇴하였지요.

선생님께서서는 연구소생활에서 시작하여 연구소 근무로 끝을 맺으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연구소경영에 남다른 경륜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업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기계연구소로 마감한 셈이지요. 한 연구소소장으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지요. 유럽에서는 연구소장 30년 재직을 자랑삼기도 하지만 3년 근무하면서 연구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기구개편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장점도 되지요. KIST이사장때도 최형섭소장의 업무추진에 방해가 안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론으로 일종의 고문노릇만 했어요.

선생님, 16세에 결혼하셔서 사모님과 다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해로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부럽습니다.

16세 結婚...6남매 두고

작년 12월27일에 결혼 60주년 기념연을 직계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치루었지요. 부부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험한 일을 보지 않고 6남매가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게 무엇보다 흐뭇한 일이에요. 고향이 천안인 내자(趙源姬·1917년)는 나보다 한살 위인데 나의 백부님과 처조부님이 서로 상대방 손녀와 조카를 보고 중간역할을 하셔서 맺어지게 되었어요.

장남 知熙(서울문리대 화학과 졸, 테네시주립대 이학박사, 전시카고대교

수), 차남 官熙(서울공대 항공과 졸, 템피스대 기계공학과 석사, 사업경영), 삼남 平熙(서울공대 토목공학과 졸, 아이오와주립대석사 기술사, 사업경영) 그밖에 3녀가 있지요. 친손·외손 합해서 10명이 있어요.

선생님 인생관을 말씀해 주시고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갑 지나면 물러나야

늙었는데 젊은체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지 모르지만 늙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환갑때까지 책임있는 지위에서 도장찍는 등 책임있는 일을 하고 60~70세때까지는 고문정도 하는 것이지요. 고문이라는 직위도 물어보는 것만 대강 대답해 준다는 바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요체지요.

과학기술의 발달, 선진국 진입 등을 크게 외치고 있으나 첨단과학기술도 재래식기술의 바탕위에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술을 골동품 취급해서는 안돼요. 반도체칩에는 재래식 기술이 불필요할는지 몰라도 기계공업은 재래식기술이 필요해요.

자동차부품생산 등에는 재래식 기술이 완전 숙달된 다음에야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오랜 동안 감사합니다. 찬란한 회혼을 건강하게 보내신 선생님과 사모님께 독자들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하게 성공한 삶을 누리는 자제분들과 함께 복된 삶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7